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무지개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본 정보

아프리카 대륙 맨 남쪽 끝에 있어요. 크기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인구는 약 6천만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많아요. 가장 큰 도시는 금광과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요하네스버그예요.

수도가 세 곳?

-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세 곳이에요!
- 케이프타운(입법 수도) :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 블룸폰테인(사법수도) : 대법원이 있어요
 - 프리토리아(행정수도) : 대통령이 살아요



남아공의 공식 언어는 무려 11개!

남아공에는 11개의 공식 언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백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만 중요하게 쓰였지만, 흑인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이 끝난 뒤 모든 민족과 언어를 존중하기 위해서 11개 언어가 모두 공식 언어가 됐어요.

나라 속에 나라가 있다고?

지도를 보세요. 블룸폰테인 오른쪽에 뚫린 구멍이 보이나요? 바로 나라 속의 나라 '레소토'가 있는 곳이에요! 나라 전역이 해발 1,400m 이상의 산지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매우 추워요.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겨울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남아공 사람들은 레소토의 설산을 찾아 스키나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간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남아공 국기에는 여섯 가지 색(검정, 노랑, 초록, 파랑, 빨강, 하양)이 들어 있어요. Y자 모양은 과거의 분열된 인종이 하나로 모여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각 색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 검정: 아프리카 사람들
- 초록: 자연과 희망
- 노랑: 광물자원 (금, 다이아몬드 등)
- 빨강: 자유를 위한 희생과 용기
- 파랑: 하늘과 평화
- 하양: 화합과 깨끗함

종교

남아공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개신교가 많아요. 그 외에도 이슬람교, 힌두교, 전통 아프리카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가 다르지만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기독교 명절은 나라의 큰 휴일이예요.

기후

남아공은 남반구에 있어서 한국과 계절이 반대예요! 한국이 여름일 때 남아공은 겨울이에요. 남아공은 땅이 넓어서 지역에 따라 기후가 달라요. 서쪽은 건조하고 비가 적게 오고, 동쪽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요. 1년 내내 햇볕이 많고, 겨울에도 온화해서 살기 좋은 기후예요. 남아공 전체는 눈을 보기 어렵지만 레소토 근처의 고지대에는 겨울에 눈이 오기도 해요.

인사말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1개나 되기 때문에 인사도 다양해요. 가장 널리 쓰이는 인사말을 알아보까요?

언어	인사말	발음	뜻
영어	Hello / Hi	헬로 / 하이	안녕하세요
줄루어 (Zulu)	Sawubona	싸우보나	안녕하세요 (한 사람에게)
코사어 (Xhosa)	Molo	몰로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넬스어 (Afrikaans)	Goeie môre	후예 모러	좋은 아침이에요

남아공에서는 친구들끼리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해요.

그럼, 줄루족 학생 시포와 영어권 친구 에이미를 따라 인사를 나눠볼까요?



싸우보나! (안녕!)

응기야필라, 왜냐?
(잘 지내, 너는?)

헬로, 시포! 하우 알 유?
(안녕, 시포! 잘 지내?)

아임 굿, 댄스!
(괜찮아, 고마워)



흑인과 백인이 어우러져 사는 곳

.....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흑인, 백인,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백인들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희망봉을 찾은 유럽 항해자들

희망봉은 아프리카 대륙의 끝에 있는 뾰족 튀어나온 땅의 끝 부분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1500년 무렵, 포르투갈 항해자가 인도로 가는 길을 찾다가 희망봉을 지나게 되었고, 이후 유럽에 아프리카 남단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줄루족의 저항

백인들은 남아공으로 들어오면서 흑인들의 땅을 차지했고, 원주민들은 그에 맞서 싸웠어요. 그 중에서도 줄루족은 용감하게 저항한 민족으로 유명해요. 줄루족은 짧은 창과 방패만으로 총과 같은 신식 무기를 가진 백인들과 싸웠지만, 결국 영국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넬슨 만델라와 평화

백인들은 흑인을 심하게 차별했어요. 흑인들은 정해진 곳에서만 살 수 있었고, 투표도 할 수 없었어요. 백인 전용 버스를 탔다가 잡혀가는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흑인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차별(아파르트헤이트)이 사라졌답니다. 이후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여러 인종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OX 퀴즈

- 희망봉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이다. [O / X]
- 줄루족은 총과 대포로 무장해 백인들을 이겼다. [O / X]
-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다. [O / X]

순서 맞추기

아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보세요.

- ① 줄루족이 백인들과 싸움
- ② 만델라가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됨
- ③ 포르투갈 항해자가 희망봉을 지남

👉 정답: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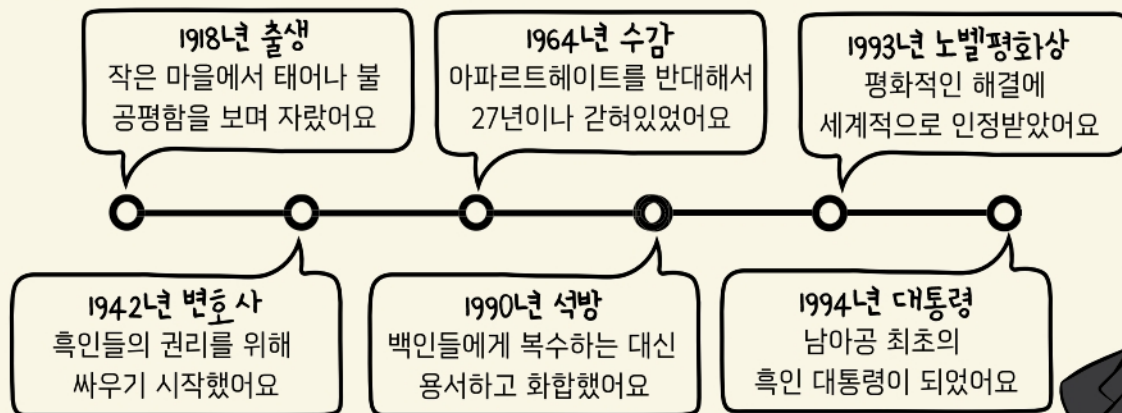
차별을 딛고 평화로

‘아파트헤이트’란? (1948-1994)

46년간 지속된 인종차별 정책으로,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어 차별했어요. 백인과 흑인은 같은 공간을 쓸 수 없었어요. 같은 학교, 병원, 버스, 해변, 공원조차 함께 사용할 수 없었지요. 흑인에게는 투표할 권리도 없고, 살 수 있는 지역도 정해져 있었어요. 또 흑인은 마음대로 집을 고를 수 없었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살아야 했답니다.

아파트헤이트는 흑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은 불공평한 차별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오랜 싸움 끝에, 1994년에 없어지게 되었어요.

차별과 투쟁한 넬슨 만델라의 생애



넬슨 만델라는 오랫동안 이어진 인종차별을 싸움이 아닌 대화와 화해로 끝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를 이끌었고, 큰 충돌 없이 평화로운 새 사회의 문을 열었어요. 만델라의 용서와 평화의 정신 덕분에, 남아공은 내전 없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순서대로 맞춰볼까요?

- ① 감옥에서 27년 동안 지냄
- ② 대통령이 됨
- ③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함

정답: (③) → (①) → (②)

남아공의 학교 문화

남아공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해요. 학생들은 영어, 아프리칸스어(네덜란드어에서 발전), 줄루어 등 여러 언어 중 하나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다른 언어를 두 번째 언어로 함께 배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를 포함해 두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언어 교육 덕분에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고, 언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요.

남아공의 학교는 1년에 4학기제로 운영돼요. 한 해가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고, 각 학기 사이에 짧은 방학이 있어요. 가장 긴 방학은 12월~1월의 여름방학으로, 크리스마스와 함께 시작돼요. 남아공은 12학년제로 운영되며, 12학년을 졸업하면 매트릭이라는 시험을 치러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이 많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중요하게 여겨요.

남아공의 현대 문화

음악과 춤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음악이 있어요. 바로, 아마피아노(Amapiano)예요. 줄루어나 코사어에서 Ama-는 ‘많은’을, piano는 건반악기를 뜻해요. 그래서 ‘많은 피아노 소리’라는 뜻이지만, 사실 피아노 소리는 없어요. 깊은 베이스 소리와 재즈풍의 선율에, 전자 음악 비트가 합쳐진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은 틱톡,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남아공의 K-POP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나이지리아, 영국,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걸그룹 르세라핌의 노래 ‘Smart’도 아마피아노의 영향을 받았어요!



스포츠와 응원

남아공에서는 축구, 럭비, 크리켓이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201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을 열었어요. 이때 유명해진 응원 도구가 바로 ‘부부젤라’인데, 경기장마다 큰 ‘부—’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일부 경기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지요. 2010년 월드컵 주제가 Waka Waka는 지금도 남아공에서 인기 있는 노래예요.



음식 문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식에는 아프리카 전통과 유럽 문화가 섞여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온 나라라서, 각 민족의 음식이 자연스럽게 어울린 거예요.



브라이

남아공식 바비큐. 고기를 불에 구워 가족·친구가 함께 나눠 먹어요. 아프리카 전통과 유럽식 바비큐 문화가 섞였어요.



보보티

향신료로 간을 한 고기를 달걀과 함께 오븐에 구운 요리예요. 네덜란드계 이주민(아프리카너) 문화에서 온 음식이에요.



빌통

말린 고기 간식으로, 맵고 짭 맛 이 나는 소고기 육포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저장 음식이 유럽의 양념과 섞였어요.



도전 골든벨 (쉬워요)

준비물: 코팅한 종이, 싸인펜, 휴지
남아공에 대한 10가지 문제를 준비했어요.
골든벨에 도전 해봐요!



스피드퀴즈 (어려워요)

팀을 나눠요. 각 팀마다 돌아가며 한 명 씩 앞으로 나와서 문제를 맞춰요. 나머지 학생들은 힌트를 줘요. 1분 동안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팀이 승리해요!

남아공 전통 게임 모라바라바

모라바라바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 즐겨 하는 2인 보드게임이에요.

말을 “소”라고 부르고, 세 개가 줄을 이루면 “밀(방앗간)”이라고 해요.

농촌 청소년들이 소를 키우며 즐겼던 놀이로, 지금은 세계적인 대회도 열려요.

준비물: 검은 돌 12개, 흰 돌 12개

게임 규칙

1단계: 소 놓기

- 검은 돌부터 번갈아가며 빈 칸에 소를 하나씩 뒹요.
- 자신의 소 세 개가 일직선(밀)이 되면 그 즉시 상대 소 하나를 버릴 수 있어요.
- ※ 밀 상태의 소는 버릴 수 없고, 버린 소는 다시 쓸 수 없어요.

2단계: 소 옮기기

- 소를 모두 보드판에 두었다면, 자신의 차례마다 소를 옆 칸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자신의 소 세 개가 일직선이 되면 그 즉시 상대 소를 버릴 수 있어요.

3단계: 소 날리기

- 한쪽의 소가 3개만 남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자신과 상대 모두 보드판의 아무 칸으로나 소를 옮길 수 있어요.
- ※ 상대 소가 2개 이하로 줄어들거나 상대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승리!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볼까요?

